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4.19(금) ~ 2024.4.25(목)

제공일시 2023 05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4.19(금) ~ 2024.4.25(목)

제공일시 2024 05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2027년부터 '강제노동' 수입품 철폐/EU, 환경·인권 '공급망 장벽' 높인다... 글로벌 기업 비상

- 2027년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수입품 판매가 전면 금지됨. 유럽의회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제노동 제품 판매금지 규정이 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힘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들어간 제품은 역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됨. 모든 기업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EU 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도 적용을 받음
- 또,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EU의 '공급망실사법(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이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함
- 중국계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지만 상당수 한국 수출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경제 2024.4.24) 김인엽 기자

(한국경제 2024.4.24) 김인엽 기자

2. EU·美, 'IRA 보완책' 핵심광물협정 타결 임박했다

- EU와 미국 간 핵심광물협정 타결이 임박했다고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EU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핵심광물협정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합의에) 거의 다 이르렀다”고 밝힘
- 이 협정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EU 기업들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인 보완책임

(아주경제 2024.4.20) 장선아 기자

3. 미, EV 충전소 문제 해결 중... 정부는 50억달러 투자·민간 투자도 활발

- 전기차(EV) 시장 확대의 주요 장애물로 지목돼 온 EV 충전소 확충 문제가 미국에서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1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에만 약 600개의 공공 EV 급속 충전소가 신설돼 지난해 말 대비 7.6% 증가함.
- 이런 충전소 건설 호황은 정부와 민간 투자의 합작품임. 바이든 행정부는 EV 충전소 확대를 위한 'EV 인프라 프로그램(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program)'을 기반으로 50억달러(약 6조 885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ESG경제 2024.4.19) 김연지 기자

4. 덴마크 정부, 역대 최대 규모로 탄소제거 구매

- 덴마크 정부가 1억6600만 달러(약 2289억원)를 투입해서 탄소제거(이하 CDR)를 구입했다고 카본헤럴드가 18일(현지시간) 전함
- 이번 CDR 구입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스테드(Orsted)와 체결한 276만 미터톤의 CDR 구매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거래임
- 덴마크 정부는 바이오서크(BioCirc), 바이오맨(Bioman ApS), 카본캡처스코틀랜드(Carbon Capture Scotland)로부터 총 110만 톤의 CDR을 구매하기로 합의함
- 세 회사 모두 CDR 솔루션 제공을 전문으로 하며, 함께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 동안 연간 총 16만350톤의 이산화탄소 제거를 제공함

(임팩트는 2024.4.22) 홍명표 기자

1.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30일 나온다… 글로벌 정합성 ‘방점’

- 금융당국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오는 30일 발표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함
- 이번 공개 초안은 글로벌 정합성과 투자자 니즈,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두루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둬. 금융위는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목표임
- 향후 금융위는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투자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이데일리 2024.4.22) 최훈길 기자

2. 해수부, 2030년까지 우리 바다 30%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 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함
- 해수부는 ‘보전과 지속 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 다양성 위협요인 관리 △해양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한 이용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네 가지 전략을 담음
- 이외에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 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임

(뉴스 2024.4.18) 홍세희 기자

3. ‘중국산 전기화물차 공습 막는다’… 보조금 지침 강화

- 정부가 기존 전기승용차로 판매하던 차량을 국내에 화물차로 들여오며 보조금을 더 챙기는 중국 업체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음
-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 데 이어 화물차 규정까지 강화되며 전기화물차 시장에서 ‘저가 중국산 공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임
-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함
- 환경부는 매년 1~2월 그 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는데, 올해의 경우 전기화물차 관련 보조금 지침 강화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달 수정 개편안을 다시 마련한 것임

(이데일리 2024.4.21) 공지유 기자

4. 환경과학원, 국제인정협력기구와 탄소배출량 검증 분야 협정 체결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검증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협정을 맺음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4일 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힘
-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으면, 검증 의견서의 국제적 통용성과 함께 탄소중립 등 환경정보 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및 동등성 확보가 가능해짐

(전기신문 2024.4.23) 오유진 기자

5. 中 과잉생산에 전기차 등 공급망 위기… 한미일 ‘RISE’로 공동 대응

- 한미일 3국이 중국의 과잉생산 저가공세로 인한 전기자동차, 태양광패널 등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함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텔리오 니키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함
- 한국은 RISE에 300만달러(약 41억2950억원)를 공여하고 역내·국제 공급망 관련 협의체를 통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패널,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핵심산업과 주요 광물 공급망 안정에 나설 방침임

(전자신문 2024.4.18) 이준희 기자

1. 테슬라, LG엔솔에 전극 6조 주문… “배터리 자체 생산”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에 6조원 규모의 전극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됨
- 완제품인 배터리셀이 아닌 원재료를 가공한 전극을 요청한 것으로,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됨
- 테슬라가 주문한 6조원의 전극은 양극재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전기차 130만~140만대에 탑재되는 물량으로, 지난해 테슬라 총 생산량(184만대)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임
- 업계 관계자는 “핵심재료인 전극을 받아 배터리셀을 직접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함

(한국경제TV 2024.4.22) 이서후 기자

2. 셰브론, 저탄소 기술 투자 위해 6900억원대 미래 에너지 펀드 출범

- 글로벌 메이저 정유사 셰브론(Chevron)의 혁신 투자 부문인 셰브론 테크놀로지 벤처스(CTV)가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5억달러(약 6900억원) 규모의 미래 에너지 펀드를 지난 18일(현지시간) 출범함
- 셰브론 테크놀로지 벤처스는 셰브론의 핵심 사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규 기술을 개발 및 투자하고, 청정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술 솔루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함
- 이번 펀드는 CTV가 조성한 펀드 중 최대 규모임. 특히, 저탄소 연료, 첨단 소재, 탄소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4.4.19) 김환이 기자

3. “혼다, 캐나다에 전기차 공장 건설 합의… 1조엔 투자”

-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가 8조원대 규모 투자를 통해 북미 캐나다에 새로운 전기차(EV) 공장을 건설함
- 2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혼다와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지역에 신규 전기차 공장 건설을 합의했으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닛케이는 혼다가 캐나다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아 배터리 제조 등을 포함해 약 1조엔(약 8조9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전망이라고 전함

(이데일리 2024.4.23) 이소현 기자

4. 바스프, 獨서 배터리 재활용 금속 정제 시범공장 가동

-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BASF)가 독일 슈바르츠하이데 생산 단지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금속 정제 시범공장 가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발표함
- 회사는 기존 양극재 공장과 함께 올해 가동할 블랙매스 생산 재활용 공장 가동으로 배터리 선순환 구조를 확대할 방침임
- 탄소 발자국을 낮춰 EU 배터리 규정을 준수하고, 핵심 금속 회수로 유럽 내 배터리 원료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목표임

(디지털데일리 2024.04.18) 고성현 기자

5. 3M, 수소 전해조 제조업체 에보로 투자

- 글로벌 기업 3M이 수소 전해조 제조업체 에볼로(EVOLOH)에 투자. 이번 투자는 3M의 벤처 캐피탈 자회사인 3M 벤처스가 에보로의 2000만달러(약 28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돼. 3M은 이번 투자를 토대로 그린수소용 전해조 모듈을 확대. 3M은 이번 전해조 모듈 확대를 통해 수소 생산량을 확대, 수소 경제 발전을 주도한다는 계획.

(더구루 2024.04.20) 홍성일 기자

1. 현대차, 美 전기차 신공장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기 위해 147 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힘
- 현대차그룹은 스페인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매트릭스 리뉴어블스’가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15년(2025~2040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이 미국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체결한 PPA 중 최대 규모임
- 향후 에너지 조달을 통해 기대되는 탄소 저감 효과는 연간 약 14만톤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준중형세단 8만4000여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것과 동일한 규모임

(지피코리아 2024.4.22) 김미영 기자

2. SK에코플랜트, 450억원 규모 블라인드 펀드 조성 나선다

-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9일 MDM자산운용과 일반수소발전입찰시장(CHPS) 연료전지사업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힘
-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총 45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하고 직접 참여해 금융지원타당성(Bankability) 등을 확보할 계획임
- 조성된 펀드는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사업 중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발전 사업의 후순위 차입금 및 자기자본 조달에 주로 활용될 예정임

(스마트타임스 2024.4.22) 이성민 기자

3. 美 450MW 태양광 수주한 한화큐셀… “7만 가구 1년 사용”

- 한화큐셀은 상업용 태양광 설계·조달·시공(EPC) 전문 자회사 인에이블이 미국 에너지인프라 전문 사모펀드 TGC로부터 45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 및 ‘턴키(일괄 생산 체제)’ 계약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힘. 450MW는 7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 양임
- 한화큐셀은 오는 2025년까지 TGC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모듈 450MW를 공급하고, 인에이블은 발전소 EPC를 담당함
- 한화큐셀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인에이블은 1억달러(약 1370억원) 이상의 EPC 계약 수주를 달성했음

(파이낸셜뉴스 2024.4.24) 권준호 기자

4. 미국 정부, LS전선에 1365억 지원… 해저사업 가속도

- LS전선이 미국 정부로부터 13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음. 미국 현지로 해저케이블 사업을 확대하려는 LS전선의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임
- LS전선은 미국 해저사업 자회사인 LS그린링크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지원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9906만달러(약 1365억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됐다고 21일 밝힘
- 김형원 LS전선 에너지·시공사업본부장(부사장)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 해저사업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함

(경향신문 2024.4.21) 이진주 기자

5. 고려아연, 호주 풍력발전소에 6700억 투자… ‘트로이카 드라이브’ 속도

- 고려아연이 호주에 위치한 풍력발전소에 7억5300만호주달러(약 6787억원)를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함
-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 아크에너지가 호주 퀸즐랜드주에 건설 중인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의 지분 30%에 대해 최종 투자를 결정했다고 21일 전함
- 이번 투자는 아크에너지의 계열사인 아크에너지 맥킨타이어를 통해 이뤄지며, 한화 약 6700억원 규모임
- 이번 최종 투자 결정으로 아크에너지는 전체 923.4MW의 발전 용량 중 30%를 확보하게 됨. 고려아연은 이를 호주자회사인 썬메탈(SMC)에 공급한다는 계획임

(MTN뉴스 2024.4.21) 민경빈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4.12(금) ~ 2024.4.18(목)

제공일시 2024 05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바이든, 한화큐셀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요청도 수용... “中철강 관세 3배 올릴 것”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대(對) 중국 관세 인상에 나섰다 (임팩트는 2024.4.19) 이재영 기자
- 17일(현지시각)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3배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 회사는 이미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다”며 이는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속임수”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과 달리 수익에 대한 부담 없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임
- 과거 트럼프 정권은 이번에 타깃이 된 철강제품에 최대 7.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이에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검토해 왔음
- 로이터는 바이든 정부가 인접 국가 멕시코에도 중국산 금속제품이 미국에 간접 판매되는 것을 금지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국경 밖에서도 대중국 견제를 하고 있는 셈임
- 중국은 즉각 반발했음.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이번 관세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광범위한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또한 관세 보복에 나선 것을 상기시킨 것임
- 미국의 중국 견제는 태양광 산업에서도 추진될 것으로 보임. 1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양면형 태양광 패널 면세 조치를 폐지해달라는 태양광 기업 한화큐셀의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지난 2월 한화큐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공식 청원한 바 있음
-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25억달러(약 3조4345억원)를 투자,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구축 프로젝트인 ‘솔라 허브’를 추진 중임. 한화큐셀은 당시 청원서에서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촉발된 태양광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현재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은 예외로 하고 있음
- 조지아주 정치인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올해 초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 강화를 요청한 바 있음. 다만, 소식통들은 아직 관세 면제 폐지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백악관은 “우리는 IRA로 촉발된 역사적인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공정한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음